

#### 6)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문화제

- 시기 : 12월 초
- 장소 : 서울에서
- 방법 :
  - ① NGO, 인권단체, 정평위, 문예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② 주요 인사 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와 피해자대회 형식으로
  - ③ 소설책 전시와 책사 소개 (타국 소개와 일반 상식선에서 가능)

#### 7) 홍보, 선전

- 각 본당 PC 달기운동 조직
  - 10월부터 가능한 본당을 중심으로
- 스티커 제작 부치기운동
- 서명작업
- 공동의 광고 및 선언운동

#### 8) 공동 소식지 제작(민의소리, 하늘의 소리 등의 제호)

- 시기 : 매주 주보형식으로
- 내용 : 진행경과, 사실, 행사안내, 교육
- 발송 : 제단체 소식, 정평위, 본당등

### 4. 조직개편안

#### 1) 필요성 :

- 지난 7-9월 사업중에 공동 집행위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진행하지 못함. 이는 각 위원회별 사업의 분산은 이루어 졌으나 집중화하는 사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단식기도와 같은 사업에서 집행력을 단일화할 필요성
- 외부단체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  
상임지도력의 보강 필요성 대두

#### 2) 개편안 :

- ▶ 상임대표 : 3인의 상임대표
- ▶ 집행위원회 : 3인의 집행위원장에서 **상임집행위원장 체계로**
- 상임집행위원장 : 천주교연대 집행 총괄책임
- 각 위원회 : 가능한 사업을 재편

### 5. 연대사업안

#### 1) 현재상황 :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석회의 결성 (6개 단체)

##### ■구성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천주교연대)-오늘 결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기독교대책위)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불교연대 (불교연대)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행동연대)
-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 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
-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본)

##### ■사업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 (10/ 2)
- 삭발단식
- 정치권 압박
- 공동선언 등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 7조항 개정을 중심으로한 시민, 사회단체 연대

#### 2) 현재 제 사회단체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6. 재정마련 사업안

스티커, 뱃지, 옷 제작 등, 강연 조직화 등.

### 광주대교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1) 참여단체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 청년연합회, 대학생연합회, 환경사제모임, 농민회

#### 2) 사업

- 서명운동 : 공문과 프랑카드 각 본당에 제공, 각 본당에 프랑카드 부착  
프랑카드 내용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순회기도회 : 자전거 순례와 접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  
(광주 시내일원, 광주 → 목포간 자전거 순례,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개최(광주, 목포)

- 시국미사 및 강연회 : 매월 1회씩 광주교구 각 지역을 순회하며 미사봉헌  
강연회 개최

-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활동 : 60일간(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농성 참여, 가톨릭센터 앞에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 부산교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1) 참가단체

노동사목, 대학생연합회, 청년연합회, JOC,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청년일꾼모임,  
정의평화위원회, 청년공동체 민들레, 정의구현사제단, 공부방연합회

#### 2) 사업경과

- 1999년 7월 29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역회의 1차
- 장소 : 가톨릭 센터
- 참가자 : 노동사목, 대학생연합회, 청년연합회, JOC,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청년일꾼모임, 정평위(7개단체 11명)
- 논의사항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 및 참가 결의, 추후 일정논의
- 1999년 8월 12일 ~ 14일 : 각 본당 2,000인 선언용지 및 서명용지, 전단, 리플렛 발송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미사 강론자료 발송

- 1999년 8월 11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역회의 2차
- 장소 : 정평위 사무실
- 논의사항 : 각 단체 역할 분담
- 선도차 등 구체적 준비물 점검
- 1999년 8월 15일 : 본당 서명 작업 (~ 현재)
- 1999년 8월 26,29일 : 국보법 폐지를 위한 2,000인 선언 광고
- 부산교구 : 성직자(56) 수도자(14) 평신도(185) - 계 255명
- 1999년 9월 2일 : 자전거 순례 및 순회기도회 개최
- 자전거 순례 : 부산역 → 진역 → 진시장 → 서면 → 전포성당 → 서면 (가두서명) → 신암 → 범천동 → 좌천동 → 부산역
- 참가자 : 44명
- 순회 기도회 : 초량성당
- 참석자 : 300여명
- 가두서명 총서명자수 : 1,100여명
- 1999년 9월 3일 : 남포동 가두서명
- 1999년 9월 4일 : 자전거 순례 (만덕 → 김해 → 진영 → 창원 → 마산)
- 마산, 창원 : 시내 집회 참석 및 시내 자전거 순례 참석
- 1999년 9월 20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시작
- 1회: 반송성당(9/20) → 2회: 전포성당(9/27) → 3회: 초량성당(10/4) → 4회: 문현성당(10/11) → 5회: 서면성당(10/18) → 6회: 반여성당(10/25) → 7회: 영주성당(11/1) → 8회: 구봉성당(11/8) → 9회: 괴정성당(11/15) → 10회: 대연성당(10/22) → 11회: 남산성당(11/29)
- 1999년 12월 6일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인권문화제
- 가톨릭센터 소극장, - 오후 8시

### 인천교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1) 참가단체

청년연대, 환경연대, 우리농 인천본부, 정의평화위원회, 부평 노동사목

#### 2) 사업

- 서명운동 - 26개 본당에서 진행, 총 8,519명의 신자가 서명
- 2000인 선언 - 사제, 수도자, 평신도 210명 참여
- 인천교구, 지역청년들은 2회에 걸쳐 한겨레신문과 가톨릭 신문을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선언운동 게재
- 단식 9일기도 -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 동안 인천교구 20여명의 사제가 단식기도와 인천교구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 단식기도 마지막 날 동인천역에서 집회, 답동성당에서 미사 봉헌



- 수요 미사 -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가톨릭회관에서 청년연대, 환경연대, 우리농 인천본부,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교구 신자들과 함께 진행
- 전국 순회기도회 - 자전거 순례단과 결합, 동인천역, 부평역에서 홍보전과 선전전 진행
- 부평1동 성당·간석2동 성당과 가톨릭회관에서 미사 봉헌
- 홍보물 제작 - 주보를 통해 홍보
- 인천교구 전 본당을 대상으로 천주교 연대에서 발행하는 포스터와 리플렛, 소식지와 엽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 목요 정치 마당 - 청년연대가 인천연합과 함께 부평역, 주안역, 동암역, 동인천역 등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
- 농성단 - 청년연대,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연합, 실업본부 등 인천지역 단체 구성원들이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톨릭회관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

##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 서명운동(2000인 선언) : 서명운동 시작 전 각 본당에 취지설명과 협조요청공문 발송
- 교구 52개성당 중 40여개 본당이 참여
- 총 7100여명의 신자가 서명, 2000인 선언 120여명 참여
- 전국순회기도회 : 중앙순례단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개최
- 청주시내 캠페인 전개(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등)
- 시국기도회 : 10월25일 청주교구 시국미사
- 충북종교인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북종교인선언(10월 15일)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등 4개교단 성직자들이 선언에 동참
- '민족의 일치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충북지역 종교협의회'결성
- 일상사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금요캠페인 전개(2달여 진행)
- 충북지역 정치인(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질의서 발송

##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제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 ▶ 서명운동 : 각 본당별로 미사 강론 후 서명운동 전개.

- ▶ 단식기도회 : 1999년 9월 13일 마산교구 사제단 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기도회를 시작하여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국가보안법 철폐 시국미사 봉헌
- 사제단의 단식기도회는 마·창지역에서 시민, 사회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이끌어 내는, 건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마창시민대책위 구성

매일 저녁 미사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알려내고 신자들의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여론을 형성, 그 결과 가톨릭청년회, 대학생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마창지구 가톨릭청년연대 준비위를 결성하고 미사참여 및 선전홍보를 진행

- ▶ 순회기도회 : 순회기도회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 9월 4일 부산에서 출발한 자전거 순례단을 맞아 마산에서 거리서명을 하고 자전거로 창원까지 이동하여 창원에서 마침집회를 가지고 가음정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진행, 9월 5일 자전거 순례단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까지 함께 이동
- 순회기도회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8월 통일행사 이후 지역의 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계기가 됨.

- ▶ 월요기도회 : 9월 13일 시작한 사제단의 단식기도회를 9월 20일 끝맞치면서 정의구현 마산교구사제단 신부님들이 시작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받아안으면서 마산교구 전체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매일진행되던 저녁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7시 30분 교구청에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 11월 1일부터는 교구청에서 진행하던 시국미사를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순회기도회로 전환하여 11월 1일 진해중앙성당, 11월 8일 창원반송성당, 11월 15일 진주 칠암성당, 11월 22일 함양성당, 11월 29일 마산 남성동성당에서 각각 진행, 특히 진주 칠암성당에서는 경찰들이 가로막는 가운데서도 신안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마지막 남성동성당에서는 미사를 마치고 교구청까지 이동하여 처음 시국미사를 시작한 교구청에서 시국미사를 끝마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계속할 것임을 다짐.

## 원주교구 정평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일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
- 원주교구 각 본당 서명운동 및 리플렛, 항의엽서 발송
- 국보법 폐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 및 캠페인(8차)
- 원주시내 본당 서명운동
- 국가보안법 가대연 강의(원주, 춘천)
- 교구청 및 본당 프랭카드 게시
- 국보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 개최(제천 의림동 성당)
- 국보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 개최(원주 원 동 성당)



- 원주시내 거리 캠페인 및 자전거 캠페인
- 원주-춘천간 자전거 순례
- 춘천-원주간 자전거 순례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원주.횡성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 원주.횡성 연대회의 공동 거리 캠페인
- 원주.횡성 연대회의 200인 선언운동
- 천주교연대 심포지엄 자료집 원주교구 전 본당 발송
- 강원도 각 당 지구당 위원장에 국보법 개폐 질의서 발송

# 내부자료

관련공문 모음.....150

각종외의록 모음.....164

여길산 자료 .....177



## (가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문서번호 : 국보법연대 99-01

시행일자 : 1999. 6. 03

수 신 :

참 조 :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 참여 요청

### †그리스도의 평화

지난 5월 27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전국의 총 17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모임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들은 본 연대기구가 범교회 차원의 실효성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의 각 지체들이 고무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귀 단체의 연대기구 참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연대기구 제안서와 5월 27일 대표자모임 회의록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참여여부를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연락처 : 임시 사무국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 전화 062-227-6008 / 담당자 : 전경진 사무국장)

\* 첨부 : 연대기구 제안서 및 대표자모임 회의록

## (가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각단체 대표 (의견생략)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전국환경사제모임 / 한국가톨릭농민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광주대교구 노동사목 / 인천교구 노동사목 /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사)푸른평화(대구)

<참관>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가톨릭청년연합회 전국협의회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전국협의회

## (가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문서번호 : 국보법연대 99-02

시행일자 : 1999. 6. 03

수 신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참 조 : 실무책임자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 사무국 설치 요청

### †그리스도의 평화

지난 5월 27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전국의 총 17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모임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들은 본 연대기구의 활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상설 사무국과 실무간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재정문제 등 현실여건상 독자적인 사무실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 귀 단체의 사무실을 빌려 사무국을 설치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귀 단체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 임시 연락처 : 임시 사무국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 전화 062-227-6008 / 담당자 : 전경진 사무국장)

## (가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각단체 대표 (의견생략)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전국환경사제모임 / 한국가톨릭농민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광주대교구 노동사목 / 인천교구 노동사목 /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사)푸른평화(대구)

<참관>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가톨릭청년연합회 전국협의회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전국협의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0

시행일 : 1999. 7. 6

수신 : 천주교 제단체

참조 : 집행책임자

##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 초대에 관한 건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교회내 여러단체는 2천년 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운동이 교회 안팎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실질적인 해방과 구원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결성대회에 초대하오니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99년 7월 12일 늦은 7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성당 입구)

- 경과보고와 참가단체 소개
- 상임대표 인사
- 격려사
- 연대사
- 사업계획 발표
- 선언문 낭독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미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광주대교구노동사목/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부산교구노동상담소/(사)우리신학연구소/(사)푸른평화/인천가톨릭환경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울, 인천, 춘천, 원주,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안동, 대구, 부산, 마산, 제주교구대학생연합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부산, 광주지역가톨릭청년연합회)/전국환경사제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정의구현목포연합, 빛두레신앙인학교, 정의구현상주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청년공동체, 인천가톨릭청년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이상 가나다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5

시행일 : 1999. 7. 28

수신 : 각 참가단체

참조 : 집행책임자

##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자전거순례) 순례단 모집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중적 힘을 모으고자 전국순회기도회(자전거 순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로 전국을 순례하며 순회기도회에 참가할 순례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명칭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 자전거 순례단

◆기간 - 1999년 8월 15일(일) ~ 9월 12일(일)

◆순례일정

서울⇒인천⇒수원⇒청주⇒대전⇒전주⇒광주⇒목포⇒제주⇒부산⇒마산⇒대구⇒안동⇒원주⇒춘천⇒서울

◆신청 : 연대 사무국 (02-747-2448)

◆신청마감 - 1999년 8월 10일까지

◆기타 - 참가비 전액지원, 구간별 부분 참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6

시행일 : 1999. 8. 5

수신 : 가톨릭신문사장님

참조 : 담당기자님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후원(홍보, 취재, 광고) 요청 건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가톨릭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7월 12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 등 교회내 여러단체가 참가하여 결성대회를 가지고 8월 15일부터 전국순회기도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시까지 1차로 집중적인 폐지운동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이번 운동기간에 귀 기관의 후원(홍보, 취재, 광고 등)을 요청하며 회신 부탁드립니다.

※별첨 : 연대기구 조직구성표 및 행사계획안. 끝.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7

시행일 : 1999. 8.

수신 : 각 본당 신부님, 각 참가단체

참조 : 사회사목분과장님, 사무장님, 집행책임자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 서명운동 및 선언운동 협조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7월 12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 등 교회내 여러단체가 참가하여 결성대회를 가지고 8월 15일부터 전국순회기도회 및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시까지 1차로 집중적인 폐지운동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 이 운동은 2000년 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실천사업의 의미를 지닌만큼 순회기도회 및 본당별 서명운동, 선언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서명용지와 선언용지는 각교구 정의평화위원회나 참가단체 사무국, 천주교연대 사무국으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747-2448, FAX 02-747-2447)

※별첨 : 1. 연대기구 조직구성표와 사업 계획 초안 1부.  
2. 서명용지 1부.  
3. 2000인 선언용지 1부.  
4. 순회기도회 사업계획서 1부. 끝.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9  
시행일 : 1999. 8. 23  
수신 :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조 : 집행책임자

## 제 목 분담금 납부 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분담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서명운동, 선언운동, 순회기도회, 심포지엄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서를 보내드립니다.

- 아 래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분담금

◆ 금액 : 오백만원(5,000,000원)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20  
시행일 : 1999. 8. 26  
수신 : 서울대학교 가톨릭 굿뉴스  
참조 : 집행책임자

## 제 목 통신상의 여론조사 및 홈페이지 개설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2000년 대회를 준비하며 억압과 인권탄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찬반 여론조사를 계획하였으며 귀 단체에 여론조사 및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감사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22

시행일 : 1999. 9. 3

수신 :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검토위원회 위원장

참조 : 인권국장

## 제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토론자 수락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국정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9월 15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대표자님을 토론자로 초청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포지엄 토론자로 수락하시면 9월 6,7일에 발제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조속한 시일내에 수락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계획안, 천주교연대소개 총2부. 끝.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34

시행일 : 1999. 11. 3

수신 : 행선동 본당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참조 : 사회사목분과장님, 사무장님.

## 제목 전국순회강연회 협조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결성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2000인 선언발표 및 광고, 한달여에 걸친 전국순회기도회, 국회에서의 심포지엄, 질의서 보내기 운동, 단식기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회년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불씨가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10월 이후 중점사업으로 국회에 폐지입법청원, 전국순회강연회, 인권문화제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국순회강연회와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전국순회강연회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유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완영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37  
시행일 : 1999. 11. 13  
수신 : 김귀식 선생님

## 제목 전국순회강연회 강사 위촉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대회년정신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11월 이후 중점사업으로 전국순회강연회, 인권문화제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순회강연회의 일환으로 11월 29일(월) 저녁 7시 광주에서 열리는 시국미사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은 미사 중 강론 시간에 강론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회년과 인권을 기본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담긴 신앙적 이유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3. 심포지엄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제목 : 광주 시국기도회 강연  
일시 : 1999년 11월 29일 늦은 7시  
장소 :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오시는방법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7번 버스 나산클레프 앞 하차, 택시이용  
광주역에서 택시 기본요금.  
담당자 : 천주교연대 사무국장 김정호 예로니모 02-747-2448, 018-223-6290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완영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41  
시행일 : 1999. 11. 27  
수신 :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조 : 사무국장님

## 제목 시국미사 참여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해방과 구원의 대회년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99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성과를 결집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로 99년 마지막 시국미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3.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 래 -

- ◆ 미사명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
- ◆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오후 4시
- ◆ 장 소 : 국회앞(한나라당사 맞은편 유가협 농성장)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완영 수녀



## 대표자 회의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12일 오후 4시
장소	서울 가톨릭회관 421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의실)
참석	김영진(상임대표), 이영숙(상임대표), 문국주(상임대표), 김홍진(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형태, 오창래(인권위원회),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박병훈(인선정평), 이준형, 진경진(광주정평), 박비오(광주노동사목), 김현영, 조상호(부산정평), 황정유(전가대협), 김경호(사무국), 노진민, 양준석(천정연), 김중운(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유영일(우리농 부산본부), 신성국(청주정평)

1. 시작기도
2. 회의진행 설명과 서기임명
3. 경과보고와 조직구성에 대한보고 - 전경진 집행위원
4. 공동집행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선확정
5. 사업계획안 확정 - 사전발제 : 전경진 집행위원
6. 기구운영과 사업에 대한 제안
7. 회의결과 보고
8. 마침기도

## 제1차 연석회의 회의록

일시	1999년 6월 17일 12시 30분
장소	천정연 회관 2층 국보법 연내 사무국
참석	전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문국주 상임대표, 이성수 간사) / 인천정평(곽한왕 총무) / 광주정평위(전경진 사무국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지현만 사무국장) / 전주교인권위원회(김인자 사무차장) / 인천청년연대(김상용 대표) / 우리신학연구소(경동현 연구원) / 사무국 (김경호 형제)
	7개 단체 9명 참석

## 합의사항

1. 경과보고
2. 상임대표 인선
3. 고문단 구성
4. 집행위원장 인선 및 역할 분담
5. 기획·정책위 구성
6. 사무국 구성
7. 기타2차 연석회의

일시	1999년 6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실
참석	인천정의평화위원회(곽한왕 총무)/광주정의평화위원회(전경진 사무국장)/청주정의평화위원회(이은규 사무국장)/원주정의평화위원회(김영진 위원장, 윤요왕 사무국장)/부산정의평화위원회(조상호 사무국장)/마산정의평화위원회(이성희 형제)/천주교 인권위원회(김인자 사무차장)/정의구현전국사제단(지현만 사무국장)/우리신학연구소(경동현 연구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양준석 조직위원장)/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김경호 형제)/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정유리 전례국장)
	12개 단체 13명 참석

## ◎ 보고사항

1. 1차연석회의 결과보고
2. 사무국관련 보고

## ◎ 합의사항

1. 기구구성 관련
  - 1) 참여단체
  - 2) 조직 및 인선
2. 결성대회 관련
3. 기타

## 2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8일(목) 오후 3시~오후 9시
장소	유성 현대리조트 8층 11호
참석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노진민(공동집행위원장), 전경진(광주정평), 이은규(청주정평), 조삼호(부산정평), 지현만(사제단), 김인자(인권위), 양준석(기획위원), 정은성(전가대협), 경동현(우신연), 김경호(사무국)

### ◎ 보고 사항

### ◎ 논의 사항

#### 1. 기구구성관련

- 1) 참여단체
- 2) 고문
- 3) 지도위원
- 4) 기구구성관련 문제제기

#### 2. 결성대회 관련

- 1) 행사관련
- 2) 지역별 참가인원 확인
- 3) 대표자회의

#### 3. 사업안 마련

- 1) 서명운동
- 2) 순회기도회 (사전거 순례와 결합)
-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계 지도자 선언
- 4) 심포지엄(토론회)
- 5) 폐지입법 청원운동
- 6) 홍보물 제작
- 7) 기타

#### 4. 집행위원회 개편 및 역할분담

1) 집행위원회 명칭변경

2) 집행위원회 역할분담

#### 5. 예산안

#### 6. 전가대협 여름대회 대표단 파견

#### 7. 기타제

## 3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23일 늦은 3시
장소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참석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이영우(공동집행위원장), 노진민(공동집행위원장), 전경진(광주정평), 김인자(인권위), 조삼호(부산정평), 지현만(사제단), 석창훈(푸른평화), 경동현(우신연), 이영우(전가대협), 이성수(천정연), 김강재(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김경호(사무국장)

### ◎ 보고사항

1. 참가단체 추가
2. 지도위원 추가
3. 사무국 결산보고 - 사무국장
4. 2차 집행위 회의보고 - 곽한왕 집행위원장

### ◎ 결정사항

#### 사업위원회

#### 1. 순회기도회

####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안 심의

#### I. 조직 확대 사업

#### II. 교계지도자 2000인 선언



III. 서명운동

IV. 재 정

**기획위원회**

I. 제1차 워크샵 보고

**제4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8월 12일
장소	가톨릭회관 421호(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참석	곽한왕(기획위원장), 노진민(사업위원장), 전경진(광주정평), 김인자(인권위), 경동현(우신연), 조심호(부산정평), 이은규(청주정평), 전준형(전주교구사제단), 이성수(천정연), 윤요왕(원주정평), 남상덕(기획위원), 오일창(안동정평), 김현택(안동정평), 김경호(사무국장)

◎ 보고사항

- 1. 지도위원 추가 2. 협조공문 발송 3. 홍보물 발송
- 4. 회의보고 5. 사무국 자원봉사자
- 6. 결산보고

◎ 합의사항

**기획위원회**

1. 심포지엄

**사업위원회**

2. 순회기도회

**조직위원회**

3. 2000인 선언, 서명운동

4. 재정(예산서 참고)

**제5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8월 25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 가톨릭대학생회관 312호
참석	문국주 대표, 곽한왕 집행위원장, 이영우 집행위원장, 양준석(천정연), 이은규(청주정평), 전경진(광주정평), 윤요왕(원주정평), 문안토니아(수녀장상연합회), 지현만(사제단), 김인자(인권위), 김경호(사무국장)

◎ 보고사항

- 1. 재정보고
- 2. 2000인 선언 보고
- 3. 순회기도회 진행상황 보고
- 4. 회의보고

◎ 합의사항

- 1. 순회기도회 25일 이후 일정검토(순례단 추가 조직방안)
- 2. 심포지엄
- 3. 통신상의 여론조사
- 4.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질의서 관련

◎ 기타 논의사항

- 1) 상임대표 이임건
- 2) 시국기도회 조직건
- 3) 9월 15일 심포지엄 이후 활동계획건



## 제6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10월 12일
장소	제천 남천동 성당
참석	김영진(상임대표), 노진민(집행위원장), 곽한왕(집행위원장), 윤요왕(원주정평), 조삼호(부산정평), 지현민(사제단), 이성수(천정연), 김경호(사무국장)

### ◎ 보고사항

1. 재정보고
2. 2차 워크샵 이후 진행상황 보고
3. 스티커 제작상황
4. 지역상황보고

### ◎ 논의사항

1. 폐지입법청원 관련
2. 소식지 관련(별첨 1)
3. 전국순회강연회 기획안 심의
4. 질의서 관련

## 제7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10월 26일
장소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시목위원회
참석	노진민(집행위원장), 이영우(집행위원장), 양준석(천정연), 지현민(사제단), 김인자(인권위), 전경진(광주정평), 이미희(노동사목), 김상용(인선청년연대), 이성수(천정연), 강성준(사무국), 김경호(사무국장)

### ◎ 보고사항

1. 재정보고
2. 스티커 제작상황
3. 서명지 취합상황 및 폐지입법 청원 보고
4. 지역상황 보고 - 지역사업, 질의서 발송 등.

### ◎ 논의사항

1. 스티커 및 소식지 제작 부수 결정
2. 국민회의 개정안에 대한 대응
3. 전국순회강연회제8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11월 23일(화) 늦은 2시
장소	서울대교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가톨릭회관 421호)
참석	노진민(집행위원장), 곽한왕(집행위원장), 문정숙 수녀(수녀장상연합회), 조삼호(부산정평), 이은규(청주정평), 김인자(인권위원회), 이성수(천정연), 김경호(사무국장), 강성준(사무국)



◎ 보고사항

1. 10월 결산 및 11월 재정보고 (별첨1)
2. 소식지(1호) 및 스티커 배포상황 보고 (별첨2)
3. 폐지입법 청원 및 주교회의 정평 사업제안보고 (별첨3)
4. 7차 집행위 회의록 보고 (별첨4)
5. 단체 및 지역상황 보고

◎ 논의사항

1. 국회논의에 대한 대응
2. 인권문화제 추진에 대하여 (별첨5)
3. 99년 활동백서 발간에 대하여 (별첨6)
4. 대표자회의 소집제안

기획·정책위원회의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1일 늦은 3시
장소	서울 천정연 회관 2층 사무실
참석	이영우(공동집행위원장),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노진민(공동집행위원장) 남상덕(前사제단 사무국장), 이석범(인권위), 양준석(천정연), 윤요왕(원주정평), 지현민(사제단), 문국주, 김경호(사무국)
	- 인천 정평의 기획·정책위원은 곽한왕 위원장이 대신하기로 함.

1. 기구구성

2. 사업

대표자회의

연대기구 결성대회

3. 기획·정책

1) 사업안 마련

2) 제안된 안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4. 기타

5. 기획·정책위 회의안 정리

6. 기획·정책위원 회의 일정

2차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16일 오후 7시
장소	천정연 회관 1층
참석	문국주(상임대표),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이영우(공동집행위원장), 지현민 위원, 기준 위원, 이석범 위원, 경동현 위원, 이성수 사업위원, 김경호 사무국장

1. 시작기도

2. 보고사항 - 사무국

3. 논의사항

- 1) 사업기조에 대한 재검토
- 2) 확정된 사업계획 준비사항과 담당자 선정
- 3) 대표자회의에서 첨가된 사업에 대한 논의



### 3차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8월 6일 오후 7시
장소	천정연 회관 2층 회의실
참석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지현만 위원, 이석범 위원, 경동현 위원, 양준석 위원, 김경호 사무국장, 강성준 자원봉사자

1. 시작기도
2. 보고사항 - 사무국
3. 논의사항
  - 1) 홍보물 초안 검토
  - 2) 워크샵 속개 여부 논의
  - 3) 심포지엄 (연구팀 초안 검토)
  - 4) 여론조사
  - 5) 질의서
  - 6) 기획위원 역할 분담
  - 7) 8.15 사면에 대한 성명서
4. 기타안건
  - 1) 집행위원회(8월 12일)와 명동 선전전 결합에 관한 안건
  - 2) 8.15 순회기도회 출정식 일정 문제
  - 3) 기획위원 변경에 관한 문제
  - 4) 위원회간 소통 문제
  - 5) 인권위 간사 모집

###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9월 3일 오후 7시
장소	천정연 회관 1층 회의실
참석	문국주(공동대표),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남상덕 위원, 기춘 위원, 권오항 위원, 지현만 위원, 양준석 위원, 경동현 위원, 김경호 사무국장, 이성수 위원, 강성준 자원봉사자

1. 시작기도
2. 보고사항-사무국
3. 논의사항
  - 1) 심포지엄
  - 2) 단식 농성에 관한 건
  - 3) 시국기도회에 관한 건
  - 4) 폐지입법 청원에 관한 건
4. 기타 논의사항
  - 1) 질의서
  - 2) 상임대표 이임건-이영숙 수녀님 환송과 이완영 수녀님 상견례
  - 3)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결성과 관련한 문제



###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명동성당 농성장
참석	곽한왕, 노진민, 김인자, 양준석, 한상욱, 권오광, 김경호

#### 1. 시작기도

#### 2. 보고사항

#### 3. 논의사항

-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 2). 심포지엄
- 3). 단식농성에 관한 건
- 4). 폐지입법 청원에 관한 건

### 제2차 사업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20일 오후 5시
장소	명동 훈 하늘·땅
참석	노진민(진행위원장), 김인자(사업위원), 이성수(사업위원), 이현정(사업위원), 김경호(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안(자전거탈레이) 검토

1. 의의
2. 일정 : 1999년 8월 15일 ~ 9월 5일( 22일간)
3. 코스
4. 진행
5. 참가자
6. 홍보
7. 준비사항
8. 예산
9. 출발시 행사

### 제3차 사업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7월 26일
장소	명동 훈 하늘·땅
참석	노진민(사업위원장), 지현만(사업위원), 김인자(사업위원), 이성수(사업위원), 이현정(사업위원), 김경호(사무국장)

#### 회의결과 - 순회기도회 일정, 코스, 예산, 홍보 등 제반사항 결정

### 제4차 사업위원회

일시	1999년 8월 5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 논의사항

순회기도회 사업계획안 심의

제5차 사업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8월 13일
장소	천정연회관 2층

논의사항

1. 8.15 출정식 장소, 시간 결정
2. 행사판거리
3. 참석자
4. 출정선언문 작성 및 배포 담당자
5. 행사장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6. 서울/인천 지역 순례단 확인
7. 기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예산서

1999년 6월 17일 - 12월 31일

- ◎ 총수입 : 60,000,000원
- ◎ 총지출 : 60,000,000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총수입 : 60,000,000원

항목	세부항목	내역	액수	비고
단체분담금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권위원회	3,000,000×2	6,000,000원	
	광주정평, 인천정평 부산정평	2,000,000×2	6,000,000원	
	마산, 원주, 청주, 안동, 제주 정평	600,000×5	3,000,000원	
	교정사목, 천정연	500,000×2	1,000,000원	
	기타 참가단체 우신연, 전가청협, 인천환 경연대, 푸른평화, 환경사 제모임(전국, 광주), 노동 사목(광주, 부산), 공부방 연합회	200,000×10	2,000,000원	
	수녀장상연합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5,000,000×2	10,000,000원	
	자료제작 분담금	단체별 소요량		8,000,000원
2000인 선언 분담금	선언자 5000원 이상		12,000,000원	
순회기도회 봉헌금		500,000×10	5,000,000원	
후원금	지도위원 후원금	50,000×100	5,000,000원	
	기타 후원금		2,000,000원	
총수입			60,000,000원	

◆총지출 : 60,000,000원

항목	내역	액수	비고	
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	700,000×6	4,200,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400,000×6	2,400,000원	
	출장비	100,000×6	600,000원	
	교통비	50,000×6	300,000원	
			소계 : 7,500,000	
사업비	행사비(결성대회)		1,050,000원	
	회의비	100,000×6	600,000원	
	2000인 선언	3회 광고	18,000,000원	세부내용 별첨
	순회기도회	차량, 홍보물 등	5,500,000원	세부내용 별첨
	워크숍	강사비 등.	300,000원	
	심포지엄		8,500,000원	
	질의서 발송	발송료, 분류, 통계	500,000원	
	연대사업비	제 사회단체 및 종교계와 연대활동	1,000,000원	소계 : 35,450,000
자료비	홍보물	항의엽서, 진단, 리플렛, 자료집	10,000,000원	세부내용 별첨
		발송비	1,000,000원	소계:1,100,000
운영비	비품구입비	컴퓨터	1,000,000원	
		전화기, 문구류 등	500,000원	
	사무실운영비	50,000×6	300,000원	
	통신비	50,000×6	300,000원	
	우편발송비	50,000×6	300,000원	
	잡비	50,000×6	300,000원	
예비비		2,000,000원	소계 2,000,000	
총액		60,000,000원		



1999년 6월 17일 - 8월 11일 결산보고

수입				지출			
단체분담금	광주정평	1,000,000	일부(7/5)	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	700,000	
	인천정평	1,000,000	일부(7/27)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00	
	교정사목	500,000	완납(7/8), (8/3)		출장비	40,000	
	청주정평	300,000	일부(7/9)		소계	980,000	
	전가청협	200,000	완납(7/12)				
	사재단	100,000	일부(6/25)				
	부산정평	100,000	일부(7/13)				
	소계	3,200,000					
자료제작분담금	청주정평	300,000	일부(8/11)	사업비	결성대회	1,058,050	초대장포함
					워크샵	377,140	
					순회기도회	300,000	차량계약금
	소계	300,000					
2000인선언분담금				자료비	유인물 인쇄비	350,000	
					배달비	48,500	
					발송비	146,000	
					소계	544,500	
후원금	북교동성당 이준형신부	1,500,000		운영비	통신비	38,190	
					복사비	23,980	
	우편발송비	157,380					
	사무실 운영비	20,850					
	결성대회 모금액	160,000					
소계	1,660,000						
소계	5,160,000			소계	1,314,800		
총계	5,160,000			4,771,330			
잔액 : 388,670							

◆총수입 : 26,448,700원 (5월 27일-9월 30일까지)

항목	세부항목	내역	액수	배정액
단체분담금	정의구현전국사재단	6/25-100,000 8/13-500,000	600,000원	3,000,000
	광주정의평화위원회	7/5-1,000,000	1,000,000원	2,000,000
	인천정의평화위원회	7/27-1,000,000	1,000,000원	2,000,000
	청주정의평화위원회	7/9-300,000	300,000원	600,000
	부산정의평화위원회	7/3-100,000 9/1-1,500,000	1,600,000원	2,000,000
	안동정의평화위원회	9/8-300,000	300,000원	600,000
	우리신학연구소	8/18-200,000	200,000원	200,000
	서울교정사목	7/8-100,000 8/3-400,000	500,000원	500,000
	전국가불림청년단체협의회	7/12-200,000	200,000원	200,000
	천주교인권위원회	8/24-500,000 9/29-500,000	1,000,000원	3,000,000
	수녀장상연합회	8/25-3,000,000	3,000,000원	3,000,00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9/17-5,000,000	5,000,000원	5,000,000
	소계		14,700,000원	
	자료제작분담금	청주정의평화위원회	8/11-300,000	300,000원
원주정의평화위원회		8/19-300,000	300,000원	
광주정의평화위원회		8/19-1,260,000 8/31-400,000 9/29-110,000	1,770,000원	완납
안동정의평화위원회		9/8-100,000	100,000원	
소계		2,470,000원		
2000인선언분담금	가톨릭농민회	8/20-200,000	200,000원	
	인천정의평화위원회	8/23-310,000	310,000원	
	광주정의평화위원회	8/23-2,000,000	2,000,000원	
	원주정의평화위원회	8/24-250,000	250,000원	
	청주정의평화위원회	8/25-250,000	250,000원	
	안동정의평화위원회	9/8-300,000	300,000원	
	노동사목전국협의회	8/26-115,000	115,000원	
	천주교여성공동체	9/9-345,000	345,000원	
	빛두레신앙인학교	9/27-105,000	105,000원	
	기타직접입금액 (부산,청주,인권위등)		1,010,000원	
소계		4,885,000원		
순회기도회 후원금	대소,광해원,안성,수원,안동,대구,상주,광주,목포		1,833,700원	
후원금	이준형(북교동 주임)	5/27	1,500,000원	
	결성대회 모금액	7/12	160,000원	
	이영숙(상임대표)	8/16	200,000원	
	최혜실(광주시민)	9/8	200,000원	
	성염(심포지엄발제자)	8/15	200,000원	
	이장희(심포지엄발제자)	8/15	200,000원	
	박준(가수)	9/27	100,000원	
소계		2,560,000원		
총수입			26,448,700원	



◆ 총지출 : 24,586,060원 (5월 27일-9월 30일까지)

항목	내역	액수	비고
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	700,000×3	2,100,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00×3 340,000	940,000원
	출장비	7/8-20,000 7/23-20,000	40,000원
	교통비	6,7,8,9월	69,000원
			상근, 반상근(활동일기준)
			소계:3,149,000
사업비	행사비	결성대회-1,083,890 시국기도회-366,330	1,450,220원
	회의비	100,000×6	223,900원
	2000인 선언	한겨레, 평화, 가톨릭	4,882,000원
	순회기도회	차량, 홍보물 등	4,504,340원
	워크샵	강사비 등.	460,040원
	심포지엄	포스터, 발제비 등	2,133,170원
	단식농성		444,500원
	연대사업비	계 사회단체 및 종교계와 연대활동	0원
			농성단 자체결산 외 사무국지출금
			소계 : 14,098,170
자료비	홍보물	항의엽서, 전단, 리플렛, 자료집	4,860,000원
		배달비, 발송비	125,740원
			소계:4,985,740
운영비	비품구입비	컴퓨터	1,000,000원
		전화기, 문구류 등	499,300원
	사무실운영비	천정연회관운영비	47,050원
	통신비	전화요금, 통신료	256,580원
	우편발송비		418,340원
	복사비		29,360원
			102,520원
			소계:2,353,150
예비비			0원
총액			총계:24,586,060

● 10월 결산 ●

수입			지출		
이월액		1,850,640	활동비	출장비	20,000
단체분담금	가톨릭환경연대	200,000		교통비	30,000
	가톨릭농민회·우리농	200,000		소계	50,000
2000인 선언분담금	인권위원회	60,000	사업비	연대사업비 (분담금 등)	830,000
	장기수후원회	35,000		순회기도회결산	130,000
				소계	960,000
후원금	최혜실 (광주시민)	100,000	운영비	비품구입비	70,400
				사무실운영비	33,720
				우편발송비	117,850
				복사비	14,560
				통신비	181,940
				잡비	4,800
				소계	423,270
자료비	가톨릭환경연대	32,000	자료비	배달비, 발송비	103,000
환급금	농성단잔액	500,000		심포지엄자료추가제작비	150,000
	운영비 환급	27,000		순회강연회 자료구입비	137,500
				소식지제작비	650,000
			소계	1,040,500	
총계		3,004,640	총계		2,473,770
잔액					530,870

※ 비고 - 10월 사무국 활동비 미지출



●11월 결산●

수입			지출		
이월액		530,870	활동비	사무국장활동비	1,400,000 (10,11월분)
단체분담금	광주정평	1,000,000		자원봉사자 활동비	800,000 (10,11월분)
	인권위원회	1,000,000		출장비 (광주×2,청주)	130,000
	인천정평	1,000,000		교통비	20,000
				소계	2,350,000
자료분담금	광주정평 (소식지 대금)	470,000	사업비	연대사업비 (연대회의분담)	100,000
	부산정평 (홍보물 대금)	907,800		회의비(8차집행)	26,000
	인천정평 (홍보물 대금)	544,200		소계	126,000
	마산정평 (비디오테잎)	80,000	운영비	비품구입비	12,100
				사무실운영비	63,900
		우편발송비		84,890	
		복사비		5,280	
		통신비		167,730	
			잡비	3,830	
			소계	337,730	
			자료비	자료발송비	18,000
				자료대여비 (민가협만화)	30,000
				스티커 제작비	250,000
				스티커출력비	14,000
				소계	312,000
총계		5,632,870	총계		3,125,730
			잔액		2,507,140

●12월 결산●

수입			지출			
이월액		2,507,140	단체분담금	사무국장활동비	700,000	
단체분담금	광주노동사목	200,000		활동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00
	원주정평	300,000			출장비 (부산,광주)	80,000
	마산정평	300,000			교통비	30,000
		소계			1,010,000	
			사업비	연대사업비 (민혁당대책위등)	330,000	
				소계	330,000	
자료분담금	광주정평	200,000	운영비	비품구입비	0	
	부산정평	80,000		사무실운영비	0	
	청주정평	294,000		우편발송비	3,240	
	원주정평	200,000		복사비	0	
				통신비	81,840	
			잡비	10,000		
			소계	95,080		
			자료비	사진현상비	11,700	
				소계	11,700	
총계		4,381,140	총계		1,446,780	
			잔액		2,934,360	



◆1999년 결산보고서 (1999. 6. 17 - 1999. 12. 31)

● 총수입 : 34,578,700원

항목	단체명	분담금	납입총액	미납액	비고	
단체분담금	정의구현전국사제단	3,000,000원	600,000원	2,400,000원		
	광주정의평화위원회	2,000,000원	2,000,000원	0원		
	인천정의평화위원회	2,000,000원	2,000,000원	0원		
	청주정의평화위원회	600,000원	600,000원	0원		
	원주정의평화위원회	600,000원	600,000원	0원		
	부산정의평화위원회	2,000,000원	1,600,000원	400,000원		
	안동정의평화위원회	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우리신학연구소	200,000원	200,000원	0원		
	서울교정사목	500,000원	500,000원	0원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200,000원	200,000원	0원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수녀장상연합회	3,000,000원	3,000,000원	0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5,000,000원	5,000,000원	0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500,000원	500,000원	0원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600,000원	0원	600,000원		
	(사)푸른평화	200,000원	0원	200,000원		
	전국환경사제모임	200,000원	0원	200,000원		
	가톨릭농민회(우리농)	200,000원	200,000원	0원		
	인천가톨릭환경연대	200,000원	200,000원	0원		
	광주환경사제모임	200,000원	0원	200,000원		
	광주대교구노동사목	200,000원	200,000원	0원		
	소계	25,600,000원	20,000,000원	5,600,000원		
	자료제작 분담금	청주정의평화위원회	594,000원	594,000원	완납	
		원주정의평화위원회	200,000원	200,000원	완납	
광주정의평화위원회		2,440,000원	2,440,000원	완납		
안동정의평화위원회		100,000원	100,000원	완납		
인천정의평화위원회		544,200원	544,200원	완납		
부산정의평화위원회		987,800원	987,800원	완납		
마산정의평화위원회		80,000원	80,000원	완납		
인천가톨릭환경연대		32,000원	32,000원	완납		
소계	4,384,000원	4,384,000원	0원			

2000인 선언 분담금	가톨릭농민회	200,000원	
	인천정의평화위원회	310,000원	
	광주정의평화위원회	2,000,000원	
	원주정의평화위원회	250,000원	
	청주정의평화위원회	250,000원	
	안동정의평화위원회	300,000원	
	노동사목전국협의회	115,000원	
	천주교여성성공동체	345,000원	
	빛두레신앙인학교	105,000원	
	장기수가족후원회	35,000원	
	천주교인권위원회	60,000원	
기타직접입금액 (부산,청주,인권위등)	1,010,000원		
소계	4,980,000원		
순회기도회 봉헌금	대소,광해원,안성,수원,안동,대구,상주,광주,목포	1,833,700원	
기타 환급금	농성단 운영비	127,000원	
후원금	이준형(복교동 주임)	1,500,000원	
	결성대회 모금액	160,000원	
	이영숙(상임대표)	200,000원	
	최혜실(광주시민)	300,000원	
	성열(심포지엄발제자)	200,000원	
	이장희(심포지엄발제자)	200,000원	
	박준(가수)	100,000원	
소계	2,660,000원		
총계		34,578,700원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총수입 : 34,578,700원

총지출 : 31,632,340원

총잔액 : 2,946,360원

실제잔액 : 2,934,360원

오차 : - 12,000원



● 총지출 : 31,632,340원

항목	내역	액수	비고	
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	700,000×6	4,200,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000×5 200,000×3 340,000	1,940,000원	상근, 반상근(활동일기준)
	출장비	회의출장	270,000원	
	교통비	월 교통비	149,000원	소계:6,559,000원
사업비	행사비	결성대회-1,083,890 시국기도회-366,330	1,450,220원	
	회의비	100,000×6	249,900원	
	2000인 선언	한겨레, 평화, 가톨릭	4,882,000원	1,000,000 미납
	순회기도회	차량, 홍보물 등	4,634,340원	
	워크샵	강사비 등.	460,040원	
	심포지엄	포스터, 발제비 등	2,133,170원	
	단식농성		444,500원	농성단 자체결산 외 사무국지출금
	연대사업비	계 사회단체 및 종교계와 연대활동	1,260,000원	소계 : 15,514,170원
자료비	홍보물	항의엽서, 진단, 리플렛, 자료집	4,860,000원	
		심포지엄, 소식지, 스티커 등	1,243,200원	
		배달비, 발송비	246,740원	소계:6,349,940
운영비	비품구입비	컴퓨터	1,000,000원	
		전화기, 문구류 등	581,800원	
	사무실운영비	회관운영비분담금	144,670원	분담액
	통신비	전화요금, 통신료	688,090원	
	우편발송비		624,320원	
	복사비		49,200원	
잡비		121,150원	소계:3,209,230	
예비비		0원		
총액			총계:31,632,340	

# 성명서 모음 · 홍보자료

- 각종 성명서
- 홈페이지 화면
- 홍보자료
  - 리플렛
  - 항의엽서
  - 유인물
  - 스티커
  - 각종 포스터



## <홍보팀 사업계획서>

### 1. 내부홍보

- 가) 항의엽서 - 엽서에 항의문구를 몇가지 넣어 제작(8월 7일)
- 나) 리플렛 - 가두캠페인시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4면 정도로 제작(8월 10일)
- 다) 강론자료집 - 각 성당에서 신부들이 강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 간략히 작성(8월 10일)
- 라) 서명운동 자료 배포시 홍보물 배포
- 마) 워크북 제작 - 자전거 순례시 각 지역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포켓사이즈의 안내용 책자 제작(국보법 안내, 폐지의 당위성, 정부, 여당안 등)

### 2. 외부홍보

- 가) 교계신문 - 평화신문, 방송, 가톨릭신문에 후원요청 공문 발송(7월 31일까지)
- 나) 자전거순례 및 기도회 확정되는대로 보도자료 배포 - 교계 및 일간지상
- 다) 각 교구 주보를 통한 홍보 - 지면 미리 예약(정평위나 지역 개별단체)
- 라) 주간지에 홍보방안 - 한겨레, 시사저널, 내일신문 등
- 마) 지방신문은 지역순례에 맞춰 일주일전에 보도자료 배포 - 지역정평위나 단체

### 3. 광고수주 및 후원

- 광고 수주 및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
- 가) 지도위원이나 대표, 집행위 등 각 관련단체나 개인이 협찬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고수주하여 사업비용으로 충당한다. (각 분과위원 1인당 1건 이상)
- 나) 각 교구나 교회단체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동력을 높인다.
- 예) 자전거순례시 타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안

### 4. 거리홍보

- 연대기구 결성 이후 3주이상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 외부에 비취진 천주교연대의 출범식때의 힘찬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동력을 높이기 위해 명동이나 기타 지역에서 홍보의 필요성 제기됨.

## <국보법 강론자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한주일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간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무더위를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분이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세숫대야에 찬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피서법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시는 형제적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모승천대축일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하에서 해방된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과 마리아를 통하여 부르는 찬미가를 통해 예수는 해방을 가져다 주러 오시는 하느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약속을 지켜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불의한 사회질서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역사속에 변혁을 이룩하십니다. 부자들은 빈손이 되고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역사는 새로운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어지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동행을 맺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그들의 투쟁에 효과를 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회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현정부들어 각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각교구 정평위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의 단체들이 참가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1989년의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기구와 맥을 같이하는 이 기구는 전국의 천주교 거의 모든 단체가 결합되었으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국보법철폐를 위해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국가보안법"하면 신자여러분들께서는 통념상 국가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이겠거니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제36년간 식민지하에서 우리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바로 "치안 유지법"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바로 국보법의 모태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국가존립의 위기라는 명분속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의(일제하 치안유지법과 다를바 없고 구형법상의 내란죄등과 중북, 사상과 인권탄압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우려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후에 개정되어 이승만 정권의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나뉘어 주로 반공법이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더구나 1974년 이후 나타나는 "긴급조치"는 모든 법을 뛰어넘어 긴급조치에 의해 모든 정치적 의사가 처벌되는 극악한 상황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하에서는 반공법에 대한 여론의 원한을 호도하고 국제개방화의 추세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난 이는 명분일뿐 반공법이 그대로 국보법에 흡수되어 엄청나게 남용 되어 가히 제5공화국을 국가보안법의 시대라 호칭할 수 있게 됩니다.

6.7공화국의 공안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측면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89년에 문규현 신부가 임수경(수산나)양과 함께 분단의 장벽인 판문점을 넘어 귀환할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두사람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그이후 많은 이들이 정권의 뜻에 반대한다는 구실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다보니 재미없으시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얽힌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어린 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할 때 이것을 정부참칭 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웃어넘길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은 상제교(上帝敎)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성화신국(聖化神國)이라는 천국을 칭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나라'도 '반국가단체'개념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7조의 찬양·고무조항이 있는데 그 적용사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경우,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한 경우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것이다는 발언을 한 경우까지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걸려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정권하에서는 안보라는 미명하에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죠.

### 국가보안법에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보다 소위 정권에 도전하는 정적을 구속하거나 비판세력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는데 이용돼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기 위하여는 생각의 자유와 그 생각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표현, 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왔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북관계에 대하여 일반국민 누구에게나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대북관을 가지도록 하여 왔고 결국 평화적인 남북교류를 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이런 의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각 기업간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한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려 거의 매일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땅을 밟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의 국방비의 단 몇%만 줄여더라도 굶주리는 남.북의 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엔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국가보안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유엔의 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여 오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유엔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자유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주된 장애물이 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0년이 냉전으로 인하여 민족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50년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를 극복하여 2,000년 대희년의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까지의 50년으로 충분합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국가보안법이 분단된 이땅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같이해 왔는가 어느정도 짐작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희년이 13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모두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해방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에 충실하여 우리삶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독사의 족속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벌을 피하겠느냐?” (마태오 23:33)

지난 역사에서 탈법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탈취하고,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 안면도 몰수하는 자들에 대해 2천년전의 예수는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질타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란속에서 있을 만하면 고질병처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색깔론 시비에 대해 감연히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본류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양심수를 가두고 의인들을 죽인 대가로서 얻은 권력과 부를 축적해온 군사독재정권에 참여했던 이들이 아닌가. 5공때는 광주시민을 죽인 대가로, 6공때는 초대형 권력비리를 통하여 기득권을 키워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의를 고발하면 체제 전복세력, 공산당이라고 매도하곤 하였다.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한 것은 이미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시키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조차도 경쟁력을 가질 없는 현실적 고려속에서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개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근래에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처벌은 인권규약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국제사면위원회의 지적도 받은 바 있어 국내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나란히 지난 91년 유엔에 동시가입 했는가 하면,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세계만방에 공식적으로 다짐한 관계이다. 그리고 몇 년간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보내고, KEDO를 통해 에너지문제까지 공동지원 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남과 북의 지원과 협력증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당국간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교류, 민간기업의 북한진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집착을 적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킬 수 없었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형법상의 조항과 중복되어 있고 단지 몇 개의 문구수정을 통한 개정은 또다른 인권유린을 낳을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새로운 슬을 담은 새로운 부대가 장만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회의나 자민련도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논쟁을 떠나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라는 법률의 금과옥조를 되새기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지리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으로 새로운 시대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하루빨리 벗어 버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1999. 8. 2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이영숙 수녀 문국주 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는 교회가 선포한 대회를 한 해 앞둔 성부의 해이기도 하고,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상처로 얼룩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에서 내년을 기쁨과 구원의 회년으로 선포한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기쁨과 구원의 회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12일 베를린에서 미사일 관련 협상이 북한과 미국간에 타결됨으로써 한반도 냉전의 마지막 섬이 본격적인 해빙의 시기로 들어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시대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질서에 발맞추어 지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이쯤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갈라진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새로운 세기에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의 개개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은 지난 죄과를 통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유엔 인권위나 인권대회에서조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탄압사례를 국가보안법에서 찾고 있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반드시 개정하고자 했던 국가보안법 문제가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도 국민적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자칫 개폐논의 자체가 유실될 상황입니다. 이는 분단체제를 악용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 저항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노를 넘어서 태생적 비애를 느낍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냉전수구세력은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의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8.15경축사를 통해 공언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권당도 야당과의 지리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혁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한사람의 인권마저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길 기원하며 이 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999년 9월 1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참석자 일동

## “민혁명당” 사건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소위 “민혁명당”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이 또다시 냉전시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켜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속시키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시기 고비때마다 터져나온 간첩단 사건은 국민들의 이성적 논의를 배제시키고 그 증거의 충분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어 온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핵심인물들로 지목된 몇몇 사람들의 북한을 다녀왔다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자백 하나 때문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량한 인사들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이 굳비 엮듯 간첩단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협의가 있으면 정당한 조사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명확한 증거에 바탕하여 법이 정하는대로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아무런 대책없이 주위의 위험앞에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형법상의 다른 조항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거하에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법 규정상의 불명확성, 인권침해요소, 적용상의 남용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폐지 또는 개정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간첩단 사건 발표로 이러한 의견이 무시되고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사장되는 상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시도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정당한 조사절차에 의한 명확한 증거에 바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도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그 진위가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입니다. 우리는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존재나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이러한 악법을 유지·존속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의 화두는 인권존중이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판단컨데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1999년 9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에 들어가며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요한 18.37)

1.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질책을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있느냐?”(창세3.9),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 나?”(창세 4.9),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양식에 대한 물음이며 내겨레,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채찍입니다. 또 우리는 역사와 민중으로부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탄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에 대해 사제로서 응답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법도 없다는 확신으로 하느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하느님나라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즉 현존하는 장소와 여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제한하여 이땅의 참된 행복의 삶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곧 하느님 나라의 정치적 권력행위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권력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는 능력과 창의가 자라나고 피어오르고 열매맺는 터전이요, 토양이기 때문에 유보적인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집권자의 시혜에 기대하기 보다는 전제되어야 할 원칙에 충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천부적 기본권을 유보시키며 끊임없이 인권을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냉전이테올로기와 악법에 의해 유지되는 안정과 질서는 성서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마태 23.27)일 뿐입니다. 이를 두려워하며 좌시한다면 우리도 그 공범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5. 공동선이란 하느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으로, 집단이나 그 집단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들의 바람직하고 균형있는 총체를 말합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26항). 공권력은 본질상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부여되는 것이며 이 최고 목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정부나 가진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선인 사회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힘쓰고, 평화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인권을 수호하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정의없이 민족의 존엄과 긍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땅의 정의와 평화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6. 우리는 민족구성원 각자가 제 몫을 하는데 헌신하고 민족과 민중 속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제로서 우리들 몫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겨레와 역사앞에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요한 18.37)는 그리스도의 삶

을 사제적 소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증거적 삶으로써 끊임없는 기본권 침해로 인권을 유린하고 이땅의 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 참된 행복의 삶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제적 의지를 오늘 단식기도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7. 억압과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말씀을 들어 경고합니다.

“사람은 하느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 9.6)

1999년 9월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문규현 신부



##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단식기도에 즈음하여

모든이들의 실천을 촉구하며...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 내십시오”(로마12:21)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은 그 표현의 하나로 우리시대의 억압과 반인권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받아 왔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존재의 기로에 선 지 오래입니다.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없어야 할 악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의 길이 아직도 험난해 보이는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사제적 양심에 기반하여 단식기도에 들어가는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예언자적 행동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메어야 할 십자가를 사제단이 앞장서 메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삭발과 단식기도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사제들의 행동은 신앙적 고뇌의 결단이자 악에 대항하는 선한이들의 일어섬을 촉구하는 채찍의 의미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며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성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 내십시오'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에 대항하여 모든 선한 이들과 연대하여 일어서고자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양심적인 모든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도록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1999년 9월 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신부님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 협의회의 입장◆

우리는 지난 9월 7일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의 단식농성과 삭발의 결연한 의지에 함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뜨거운 형제적 사랑을 나누기위해 오늘 전국 각지의 노동사목의 현장에서 함께 모였다.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회원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형제를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사상의 자유가 박탈되고, 고문으로 상처받고 감옥에 갇힌 수많은 영혼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마음으로 단식에 임하고자 한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악법이다. 인간을 증오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법이 어찌 법인가? 지금 이곳에 와야할 하느님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거부하는 법은 악마의 법에 다름 아니다.

부모와 형제를 못보게하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게 하는 그 암흑의 시간을 연장하는 법은 도저히 인류의 법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느님의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피붙이인 동생을 들로 끌고나가 돌로 쳐죽인 카인은 야훼가,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자신을 외면하며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때 아벨은 땅속에서 죄없는 자신의 죽음에 원통해서 울부짖고 있었다.

이 시대의 아벨은 지금도 우리곁에 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아벨의 영혼은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나의 형제, 나의 사랑 아벨을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김대중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며 이제는 자랑찬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더불어 지금까지 독재정권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 자민련의 냉전세력에게 경고한다. 5.6공 시절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쳐놓으며 나라살림까지 거덜내 수백만의 실업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대들은 이제 회개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회원들은 다시한번 의지를 모은다.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제들의 행진에 우리도 함께 보탬이 되고 더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응답하고 참여할 것을 믿으며 서로 나누고 힘이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기쁜 마음으로 출발한다.

1999.9.10일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먼저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한 후 여러 측면에서 불철주야 야당의 본연임무(?) 위해 노력하시는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 의원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은 일반 민생현안 처리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구세력의 반공 심리를 부추켜 또다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반공과 대결의식으로 내몰기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남북간에는 관광선이 오가고 있고 비료와 식량등이 해마다 보내지고, 상당한 무역거래가 오가는 현실속에서 지난 분열과 대립의 상징인 낡은 악법을 불모로 정쟁을 일삼는 것 자체가 IMF라는 상황아래서 소모적이라 생각하기에 몇가지 의혹을 간추려 공개적으로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은 지난 김대중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8·15경축사조차 '사회주의적 시각' 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국가보안법은 변화하는 남북현실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그간 개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1988년 '7.7선언' 이후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성사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소위 햇볕정책을 통해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하는 등 북한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입자격을 국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가입으로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1년 남북총리가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조항 2조)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자체가 법으로서의 존치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이에 대한 약간의 개정의 움직임도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국제정세인식이 부족해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 유엔조차 사회주의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까? 그 생각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십시오.

### 2. 이회창 총재는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보안법의 본질적 부분을 개정하거나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때에 가서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법으로, 그 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가 지난 92년 3월 대법관 재직시절 국가보안법의 악용가능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매우 한정적으로 엄격히 해야한다고 발표해 당시 국가보안법의 위헌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992년도는 남북이 전쟁위기로 한층 대결의 기운이 고조될 때에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신 분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마저도 '시기상조' 라면 어느 때에 가서야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남북은 '시해 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 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회창 총재의 말은 대법관시절의 생각이 오판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를 하다보니 말을 자주 바꾸는 습관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진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3. 한나라당은 지난 8월 18일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오용이 우리사회를 위협해왔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한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라 생각합니다.

### 아직도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한 외늬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보안법은 가장 극성을 부렸던 5공화국 말기에 이르러 대표적인 '악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적 저항이 이루어졌던 6.29 선언이후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악법개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9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92년 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B규약)' 가입을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자 인권위측은 "국가보안법이 인권 규약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며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사례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내부 통일운동의 열기를 이어받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번번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절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오용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요술방망이처럼 집권당과 집권체제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이에 도전하는 저항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막걸리법이 맹위를 떨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외눈박이식, 두발로 걸을 수 없는 절음박이식 체제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한라당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공청회를 가지실 용의는 없습니까?

## 맺는 말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위의 세가지 질의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천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회년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라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상복구하는 섬과 회복의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인쇄천, 경천애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하늘이고, 하늘같이 섬기는 것이 정치이고 인간의 사는 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한 악법의 폐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고, 이 땅을 사는 정당한 시민이고, 남과 북 모두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이며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려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기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우리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권력과 법으로 통치하려는 발상이며, 시대의 흐름을 정치에 반영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동과 반역의 흐름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법이 있는 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이 없는 한 우리는 지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9. 9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식발·단식기도에 들어가며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요한 18.37)

1.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질책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책은 역사와 민중의 목소리를 빌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물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허황된 구호나, 이상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 갈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실현을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인간이 가진 기본권리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법도 이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천부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여 은혜를 베풀 듯이 합니다. 또한 야당의 일부세력은 이것조차 가로막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합니다.

4. 공권력은 인간의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공권력의 자선이나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정의의 구현을 촉구합니다. 정의와 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식발단식기도회'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한민족 구성원 각자가 제 몫을 다하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고, 민족과 함께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식발·단식기도에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인권의 세상이 올 때까지 나아갑시다.

1999년 9월 14일  
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 진리를 외쳐라!

### - 삭발 단식 기도회를 월요 기도회로 전환하며 -

1.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평화와 자유, 인권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삭발단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마산교구의 신부님들이 삭발단식 기도회를 시작하여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평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식 기도회를 "월요기도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삭발단식기도회가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월요기도회"는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모든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것이 정권자와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면 우리는 그 정권자와 국회의원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3. 삭발 단식 기도회 동안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단체, 시민, 신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월요기도회"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월요기도회"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막는 세력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창세 9.6)

1999년 9월 20일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9일 단식기도를 시작하며

"악법을 제정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이사10.1)

오늘 저희는 역사와 민족, 그리고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용서를 청합니다.

제단앞에 엎드려 사제로 서품되던 시간, 하느님 백성들은 저희들이 사랑과 평화, 자유와 해방을 주기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은 사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첫마음 역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제, 반목과 불신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를 심어주는 사제, 그릇된 세상의 질서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제가 되고자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첫마음을 간직하지 못했으며, 세신을 통해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일상의 안락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죄없는 순박한 백성들을 옥아매고 감옥에 가두었던 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갈라져 신음하는 같은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여 미움과 증오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형제를 갈라놓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평범한 백성을 남과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노동자들, 군부독재에 항거하던 학생들, 구태타와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애매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하여 1백만명이나 되는 힘없는 하느님 백성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요즘은 정치권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되고 일부조항만 개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나 대체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이 반세기동안 끼쳐온 심대한 해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남북교류 확대로 민족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과거 독재정권의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서울에서 20여일 동안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동료 사제들의 결연한 의지는 이제 각 교구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사제들의 용기에서 희망을 보며 인천교구 사제들도 그들의 가난한 외침에 동참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도 그리스도 강생 2000년 대회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대회년은 모든 민족과 집단이 지난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서를 청함으로써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하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대회년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길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살아내야 할 사제로서 우리들의 몫인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자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을 청할 때 9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국가보



안법 폐지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희망과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9일 단식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단식은 이사야 예언사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이런것이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려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 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이사야 58,5-7) 저희들의 이 단식기도가 억압과 탄식으로 어둠에 쌓인 한반도에 새벽을 가져오는 작은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나라에 대한 열정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고, 우리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제로서 부끄럼 없이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새로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작은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합니다.

국가보안법 50년, 그 동안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1999년 9월 28일  
단식 9일기도에 들어가는 인천교구 사제 일동



『너희가 먹을 것을 주이라』 (마르코6,37)  
천주교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의평화위원회

정평 제99-8호 1999. 10. 13

수 신 : 본당 신부님, 본당 사목회장, 교구 단체장 제위

제 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자들의 결의 실천 협조 요청

† 오소서, 일치와 희망의 원천이신 성령님!

1. 9월 30일에 발표한 '교구 신자들의 결의문'의 실천 경과와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결의 1. 실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는 매월 1회 지구별로 순회하며 봉헌하기로 하고, 제 3회(1회 9.8. 2회 9.30 목성동) 기도회 미사는 10월 18일 7시 30분 안동 송현동 성당에서 가지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 결의 2. 실천 : 매주 주보에 실을 글을(10월 17일부터 연말까지 11주분) 본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주보 1/2 면 정도의 고정란을 마련하여 실어주시고, 가능하면 반모임에서 나누기로 이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실을 글 1회분 별첨)

다. 결의 3. 실천 : 국가보안법 폐지 지향을 연말까지 주일미사 중 보편지향기도와 대회년 맞이 묵주기도 1억단 봉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기도 예시문 별첨)

라. 결의 4. 실천 :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및 폐지 운동에 대한 의견 수렴 센터를 설치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760-300 안동시 송현동 337 송현동 성당 정의평화위원회 T.0571-859-4213)

마. 결의 5. 실천 :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안동지역 제 민주단체 연대기구 설치 제안서 발송 - 99.10.5(화)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연대기구 설립을 위한 경북 북부지역 제 민주단체 간담회 개최 추진 - 10.14(목) 저녁 6시 안동문화회관 204호

바. 결의 6. 실천 : 1차로 추진하는 과제는 교구 내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방문, 전화, 엽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참여를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법 폐지 반대 국회의원 명단 : 영주-박시균, 의성-정창화, 문경·예천-신영국, 상주-이상배, 영양·봉화-김광원).



- 붙임 1 : 1.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주보글) 1회분.  
2. 보편지향기도 예시문 1부. 끝.

천주교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오영창 도마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승근 비오 신부

최승근

### 〈붙임1〉

####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1호)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안동교구 사제단 단식기도에 즈음하여 '교구 신자들의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 '우리의 결의'(2항)에서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신자 모두가 알고, 함께 폐지운동에 힘을 모으기 위하여 본당의 주보에 글을 신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0여 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내용, 그 내용의 문제점, 우리 신앙과의 관계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에서 이 글을 같이 읽으며 나누기를 가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천주교회는 국가보안법을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9년 사제단의 전국적인 단식기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호소한 적이 있었고, 꼭 10년이 지난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를 결성하여(7.12) 폐지운동을 벌여 오던 중 사제단의 단식기도로 적극성을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 신자들이 결의문을 낸 것은 이 운동을 모두가 함께 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 〈붙임 2〉 국가보안법 폐지 지향 보편기도 예시문

#### 1)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월 일)

저희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명하신 하느님.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서 진리와 자유를 억누르는 도구로 쓰여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겪어왔습니다. 2000년 대희년을 눈앞에 둔 우리는 감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증거 할 용기와 힘을 주소서.

#### 2) 국가 보안법으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월 일)

의로운 이의 희생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조작되고 덧씌워진 죄목 때문에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그분들의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가 나태와 안일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3) 이 땅의 통일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월 일)

화해와 일치를 주시는 하느님.

우리 겨레는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갈라져서 불신하고, 미워하고, 해꼬지를 일삼아 왔습니다. 남과 북 서로가 모두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족의 하나됨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단호히 배척하고 제거하는데 몸바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 4) 이 땅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월 일)

당신의 모상 대로 사람을 지어내신 하느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당신의 창조질서에 부합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땅의 인권상황에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북 종교인 선언

1. 우리 종교인들은 온 겨레와 함께 이 땅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빠질 때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는 이 때에 세계사의 도도한 변화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충청지역 종교인들은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 세계가 새 천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지만 참다운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더욱이 근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나라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막 저물어가는 급세기 동안 이태올로기의 대결이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새로운 세기에는 경제대국의 이기주의가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런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시대가 요청하고 국민이 바라는 마땅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남과 북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없거니와 민족의 비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민족의 해원과 상생, 나눔과 섬김을 통한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4. 민족 통일만이 이 땅에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그 동안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참다운 화해와 용서를 가로막았던 반통일 악법이고, 반민주 악법입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갈라진 겨레, 북한을 반국가세력으로 전제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남북한이 국제법상의 주권과 상호 체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상황변화를 생각할 때,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진실하지도 못한 위선입니다. 동포를 적으로 부르는 것은 인류에도 어긋나며 사실상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또 법률적용도 시종일관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도구로 쓰여졌습니다. 학문과 사상, 그리고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족쇄를 채우는 이 법에 대해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폐지를 바라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단체도 줄기차게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정부가 밝히고 있는 지향과는 반대로 여전히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양심수를 만들어 내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초기 1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역대정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63명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에 큰 위기를 불러온 역대 정권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회개도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냉전논리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후안무치한 처사입니다. 민족의 고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회개를 아울러 촉구합니다.

5.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겨레의 현실을 바라보며 민족 전체가 준비해야 할 새 천년의 기쁨 곧 통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반통일 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6.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여러 차례 인권운동가임을 자처하였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신앙은 악법은 악일 뿐이지 법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 대통령, 신앙인 대통령의 절대 과업입니다.

7.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말로 모든 신앙이 가르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새 천년의 미래를 위한 공동선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대는 날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1999. 10. 15

원불교 충북교구,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충북기독교 교회협의회, 충북 불교 호법 위원회 (가나다 순)